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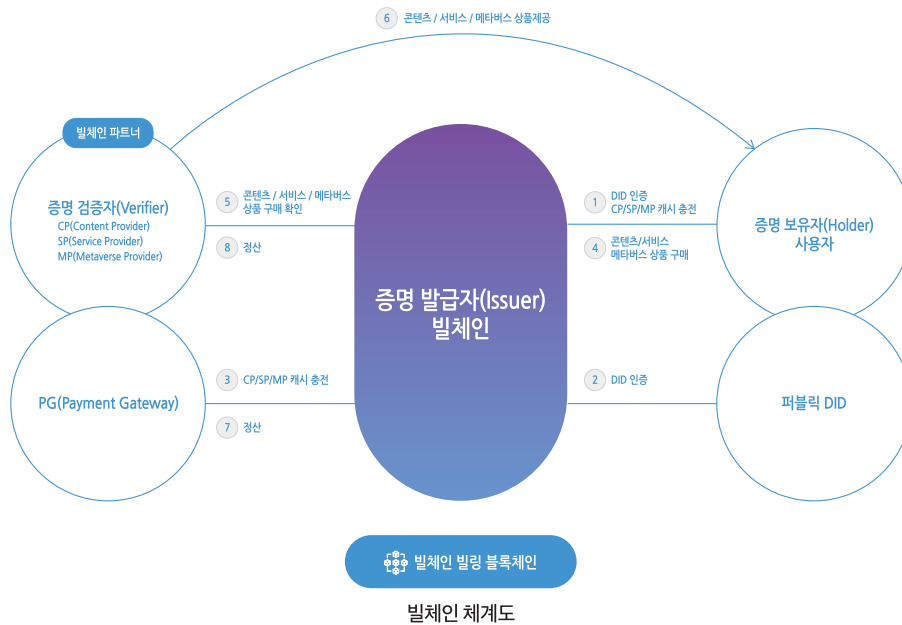
ICT 표준기술 구현·검증을 통한 공신력 확보와 글로벌 역량 강화 표준

오스리움



Auth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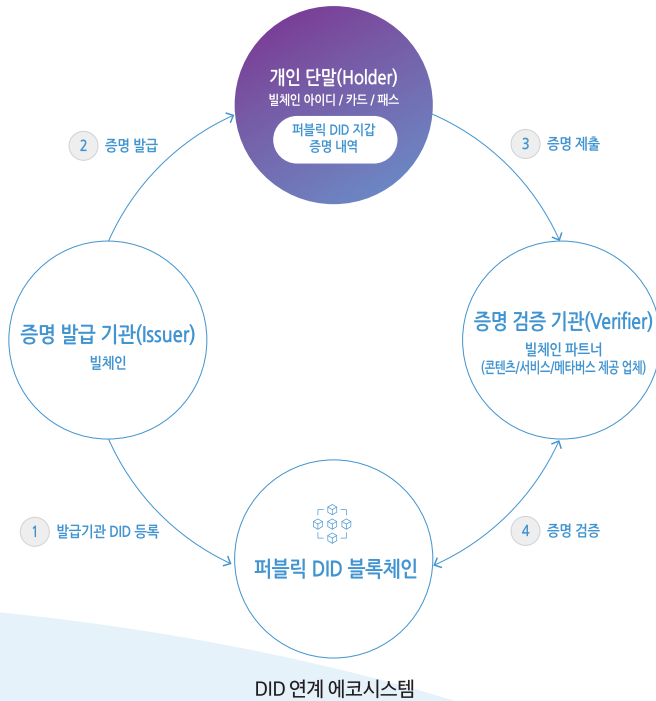
기업명	오스리움
대표자	고승곤
홈페이지	https://www.billchain.link
주요사업	분산DID 및 블록체인 기반의 토털 솔루션
설립일	2019년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아이에스비즈타워 1차 507호



오스리움은 DID(분산신원증명)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인터넷을 빅테크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창업했다. 일차적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개인과 CP(콘텐츠제공자)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목표를 두고 ‘빌체인’을 기획했다. 이어 온라인의 빌체인을 오프라인 시장으로 확산하여 콘텐츠 시장이 개인과 판매자 중심의 생태계로 변화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DID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간, 기업과 고객 간,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 간 안심 인증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려 한다.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DID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인 오스레저-분산ID와 SC(스마트컨트랙트)를 지원하기 위한 오스레저-SC가 있다. 오스레저-분산ID는 하이퍼레저(hyperledger) 기반의 DID(분산신원증명) 제공을 위한 트러스티, 스튜어드, 트러스트 앵커, 발급자, 보유자, 검증자로 구성된 블록체인 구축을 제공한다. DID는 W3C에서 인정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기술 기반의 오스레저-분산ID를 개발했다. B2C 분야로는 빌체인 서비스에

분야	선정내용	지원금액
구현·검증	퍼블릭 DID(분산 ID) 지갑/블록체인을 지원하는 DID 기반의 과금증명 발급/제출/검증 서비스	약 45백만 원



적용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중이며, B2B 분야로는 기관에서 기업에 발행하는 증명에 적용하여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B2B 분야는 기업에 발급한 증명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에서 위임에 대한 설계가 아주 중요한데, 아직 DID 표준이 위임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기존 기술과 융합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증명 위임에 대한 스펙을 DID 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오스레저-SC는 하이퍼레저 기반의 블록체인 구축, 스마트컨트랙트 및 Dapp(탈중앙화응용) 개발, 시스템 운영을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한다. 하이퍼레저는 전 세계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산업 표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데이터 거래소, 물류, 운송 등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KAIST 오토아이디랩과 제휴를 통해 유통 표준인 GS1에 DID와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무역 및 물류에는 이미 GS1이 표준 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증명에 대한 부분은 DID가, 이력 추적에는 블록체인이 적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무역과 물류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GS1, DID,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진출의 발판, ICT 표준기술 구현검증

오스리움은 2019년부터 DID와 블록체인 기반 과금 서비스인 빌체인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표준기반 특허를 출원했다. 빌체인 특허는 DID 표준을 준용한 특허이기에 2021년 TTA에서 지원하는 표준기반 특허가치평가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내 기준 10억 원 규모로 평가되어 경영과 투자유치에 큰 힘이 됐다. 이후 표준 기반 기술에 대한 TTA의 지원프로그램을 안내받아 표준 구현서비스에 신청했다.

TTA의 ICT 표준기술 구현검증 사업에는 빌체인을 개발하는 동안 해외 DID 업체와 연동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원했다. 실제로 국내 개발 DID 기반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DID와 연동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회사라고 하면 대부분 코인이나 NFT 등 퍼블릭 블록체인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기업형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DID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었다. 실제로 ICT 표준기술 구현검증 사업에 힘입어 마이크로소프트, 트린식과 같은 해외 DID 서비스 업체와 미팅, 협의, 연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준비한다

오스리움은 2023년 빌체인 베타 서비스를 론칭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트린식의 DID 서비스와 연동할 계획이다. 이미 TTA ICT 표준기술 구현검증 사업을 통해 연동을 마무리한 상태다. 또한 빌체인 시연을 위해 시연사이트를 개설하고 앱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빌체인 파트너는 온라인 콘텐츠 업체, 오프라인 콘텐츠 업체가 될 수 있기에 그들에게 제공할 샘플 웹과 앱을 개발하는 중이다. 파트너는 빌체인 가입 및 API 가이드를 이용한 간단한 연동만으로 과금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DID 업체와 연동을 통해 DID 지갑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글로벌하게 확보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파트너 업체와 연결함으로써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